

연구보고 287/ 1993. 12.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이 중 응 연구위원

빈

면

머 리 말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UR협상 타결로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관계 또한 일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그동안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식생활 소비구조 변화로 신선야채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생산량은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으로 정채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어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82년 약 10만톤에서 1992년 현재는 무려 2.7배나 증가한 27만톤에 이르고 있어 년평균 10.4%의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로부터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91년 현재 약 1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4%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품목도 과거에는 저장성이 강한 품목에서 최근에는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적 저장성이 강한 품목의 경우 수입선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수입선을 인접국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금후 저장성이 약한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일본의 농산물시장 조사연구시리즈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수출업체는 물론 생산농가에 일본의 농산물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3. 12.

院 長 鄭 英 一

비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

제 2 장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 5
2.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전망10

제 3 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1.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13
2. 대일 신선오이 수출 전망16

제 4 장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분석

1. 일본산과의 가격 경쟁력25
2. 일본산과의 품질 경쟁력28

제 5 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1. 대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33
2. 대일 농산물 수출체계의 확립방안51
3.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5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64
2.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65
3.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66
4.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67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일본의 야채 수급 추이	6
표 2- 2	일본의 신선야채류 수입량 추이	7
표 2- 3	주요 신선야채류 품목별 수입량 추이	7
표 2- 4	일본의 주요 신선야채류 품목별 생산량 추이	8
표 2- 5	일본의 주요 신선야채류 수입국별 수입량, 1991	9
표 2- 6	일본의 야채생산 및 수요 예측	10
표 2- 7	일본의 야채 식부면적 및 생산량 추이	10
표 2- 8	일본의 주요 야채류 품목별 식부면적 추이	11

제 3 장

표 2- 1	주요 농축산물의 품목별 대일 수출 실적	13
표 3- 2	일본의 한국산 신선야채 수입량 추이	14
표 3- 3	대일 신선오이 수출 실적	16
표 3- 4	일본의 월별 오이 도매물량 및 가격, 1991	17
표 3- 5	일본의 지역별 가공오이 수입량 추이	18
표 3- 6	일본의 오이 주산지별·용도별 출하량 추이	19
표 3- 7	일본의 년도별 오이 생산량 변동 추이	20
표 3- 8	일본의 주요 오이 주산지별 생산량 변동 추이	21
표 3- 9	일본의 주요 오이 주산지별·계절별 생산량 변동 추이	22
표 3-10	일본의 오이 5대 주산지 계절별 출하량 구성비(1990년산)	23

제 4 장

표 4- 1	일본의 오이 가공품별 주요 수입국 및 수입량	26
표 4- 2	일본의 1차 가공오이 주요 수입국별 가격	26

표 4- 3	일본의 신선야채류 표준규격	29
표 4- 4	일본의 산지별·품목별 표준규격	29
표 4- 5	주요 야채류의 규격별 도매시장 가격(1992년 12월 8일 현재)	30
표 4- 6	일본 수입상의 한국산 수입 오이 품질 평가	31

제 5 장

표 5- 1	조사지역 및 규모별 조사호수	35
표 5- 2	단위당 생산비 수준별 10a당 투입비용 및 산출량	35
표 5- 3	단위당 수확량 수준별 요소 투입액	36
표 5- 4	수출 규격 미달품 정도별 kg당 생산비(10a당)	38
표 5- 5	재배농가의 10a당 투입비용 비교	39
표 5- 6	kg당 생산비 수준별 투입물재별 비용	39
표 5- 7	kg당 순수익 수준별 투입물재별 비용	40
표 5- 8	한일간의 시설오이 1차 생산비 비교	41
표 5- 9	수출 오이 수집경로별 비용	45
표 5-10	월별 총수집량에 대한 수출 실적	46
표 5-11	컨테이너 규격별 수출 비용	46
표 5-12	일본의 컨테이너 규격별 유통비용	47
표 5-13	수출 오이의 일본 도착 원가(한국-일본)	48
표 5-14	일본 오이의 표준규격별 가격	51
표 5-15	1992년도 대일 신선오이 수출 이행결과(N사)	52
표 5-16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가격과 국내 도매가격 비교	53
표 5-17	신선채소류 품목별 대일 수출 업체 수 및 물량(1992년 부산검역소)	56

그림 목 차

제 4 장

그림 4-1 오이 월별 도매가격 비교(일본 대 한국)27

제 5 장

그림 5-1 한국산 수출 오이의 유통경로43

그림 5-2 일본의 월별 오이 도매가격 및 한국산 가격 비교4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라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저장성이 약해 운반에 어려움이 많아 원거리 국가보다는 인접국과의 교역관계가 많을뿐만 아니라 경쟁관계 역시 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장성이 약하고 운반에 어려움이 많은 신선채소류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그동안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식생활 소비구조 변화로 신선야채의 수요량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생산량은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어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82년 약 10만톤에서 1992년 현재는 무려 2.7배나 증가한 27만톤에 이르고 있어 년평균 10.4%의 수입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로부터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91년 현재 약 1만톤

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4%에 지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는 양배추가 가장 많고, 이어서 오이와 송이버섯, 그리고 양파 및 호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년도에 따라 수입량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교적 저장성이 강한 품목의 경우 수입선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선을 가장 인접국인 우리 나라로 전환하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신선야채류 수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생산농가의 생산기반은 물론 생산기술이 크게 미치지 못해 수출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금후 신선채소류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신선채소류 대일 수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채소류의 생산에서 수출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일 농산물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우리 나라 야채류의 대일 수출은 일부 특산물을 제외하면 품목이나 물량면에서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과거에는 비교적 저장성이 강한 품목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장성이 강한 품목의 대일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은 저장성이 강한것 보다는 저장성이 약해 운반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채소류 중에서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생산단계에서 수출 및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추적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의 도출 및 수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방법은 생산단계 조사를 위해 대일 수출 오이 생산농가의 경영실태와 생산비 및 수익성을 조사분석하고, 수출 및 판매단계의 조사를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는 물론 단계별 수출입업자와 판매업자를 추적조사하였다.

빈

면

제 2 장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

일본의 식생활 소비구조는 과거 전통적인 동양식 식생활에서 최근에는 서구식 식생활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생활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한 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문명의 급진적인 도입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풀이된다. 즉,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은 고용기회 확대와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여성의 가사시간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는 여가 선호현상은 물론 외식기회 확대와 동시에 식품 소비의 고급화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비용의 상승과 쾌적한 생활공간 선호현상은 거주지를 도시주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시간을 크게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추가해서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독신생활자의 증가는 생활양식은 물론 식생활 소비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식

표 2-1 일본의 야채 수급 추이

단위: 천톤

	1980	1985	1987	1989	1990
국내 생산량	16,218	16,216	16,598	16,146	15,739
외국무역 수입량	468	790	1,047	1,527	1,551
수출량	1	1	4	2	2
국내 소비량	16,685	17,005	17,641	17,671	17,288
감모량	1,712	1,739	1,815	1,814	1,768
조식료	14,977	15,266	15,825	15,857	15,520
1인1일소비량(g)	350.5	345.5	353.7	352.5	344.0

주: 1990년 수치는 속보치임.

자료: 원예통계, 「농림수산업 통계정보부」, 1991.

생활 소비형태 역시 편리하고 간단한 서구식 식생활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채소류 소비 또한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의 채소류 생산은 농촌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임 상승 및 노령화로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은 1980년 468천톤에서 1989년에는 1,551천톤으로 9년간에 무려 3.3배의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수요량에 대한 수입량 비중은 같은 기간에 2.9%에서 9.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당 1일 야채 소비량이 1980년 350.5g에서 1990년에는 344.0g으로 오히려 2%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량 증가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 생산량이 최근 크게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신선야채류 수입량은 (표 2-2)와 같이 1980년 108천톤에서 1991년에는 272천톤으로 약 2.7배의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야채류 총수입량에 차지하는 신선채소의 비중도 1987년까지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증가 추세를 보여 1991년 현재 17.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신선채소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서

표 2-2 일본의 신선야채류 수입량 추이

단위: 천톤, %

	1980	1985	1987	1989	1990	1991
야채총생산량(A)	16,218	16,216	16,598	16,146	15,739	14,118
야채총수입량(B)	468	790	1,047	1,527	1,551	1,582
(신선야채분)(C)	108	124	126	207	236	272
B/A	2.9	4.9	6.3	9.5	9.9	11.2
C/A	0.7	0.8	0.8	1.3	1.5	1.9
C/B	23.1	15.7	12.0	13.6	15.2	17.2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 통계정보부」, 각년도.
 식료수급표, 「농림수산대신관방조사부」, 평성 4년.

벗어진 결과로 신선채소의 수입량 증가율이 그만큼 높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일본의 최근 신선야채류 수입량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표 2-3)과 같이 1991년 현재 총수입량 272천톤 중에서 호박이 101천톤으로 가장

표 2-3 주요 신선야채류 품목별 수입량 추이

단위: 톤

	1988	1989	1990	1991
호 박	81,978	81,752	99,151	101,088
양 파	112,444	80,779	86,646	62,786
양 배 추	6,158	5,360	8,088	45,544
아스파라카스	11,926	10,736	11,606	12,482
채 두 류	9,308	6,585	7,476	12,621
당 근 (무)	1,127	1,484	3,657	10,007
파 종 류	5,462	5,866	5,805	6,405
마 늘	4,238	4,355	3,265	3,945
버 섯 류	2,504	3,223	3,562	3,541
세 로 리	589	410	710	1,626
오 이	8	232	143	709
꽃 상 치	451	519	637	632
기 타 야 채 류	4,363	5,075	5,069	10,444
합 계	240,556	206,376	235,815	271,817

자료: 1991년도 수입청과물통계자료,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2.

많고, 이어서 양파 63천톤과 양배추 46천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파를 제외하면 모든 품목에서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입량 증가율이 높은 것은 양배추와 세로리, 그리고 오이와 꽃상치 등 생식용 채소의 수입량 증가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주요 신선야채류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표 2-4)의 국내 생산량 추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호박과 마늘, 그리고 버섯류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그 외의 품목은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요량 증가에 비해서 공급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이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생산량이 1986년 1,040천톤을 최고로 그후 계속 감소해 1990년 현재는 931천톤으로 무려 10%나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요 신선채소류 수입량 증가는 국내 소비량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다.

표 2-4 일본의 주요 신선야채류 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호박	273	278	277	284	297	286
양파	1,326	1,252	1,307	1,251	1,269	1,317
양배추	1,589	1,667	1,631	1,573	1,623	1,544
아스파라카스	—	35	—	39	—	31
채두류	276	279	277	259	260	251
당(무)근	871	882	886	891	895	855
파종류	553	573	564	522	542	558
마늘	—	34	—	28	—	35
버섯류	202	220	230	242	252	270
세로리	46	49	47	45	45	45
오이	1,033	1,040	1,026	975	975	931

주: 채두류는 풋콩, 완두, 강남콩 등임.

자료: 1991년도 수입 청과물 통계자료,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2. 4.

주요 신선야채류의 품목별 수입국을 보면 (표 2-5)와 같이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어서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양채류의 경우 저장성이 강하거나 또는 고급품목은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등 남방구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는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오이의 경우 전량 우리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일반 채소 중에서도 운송에 어려움이 많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은 가장 인접국인 우리 나라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2-5 일본의 주요 신선야채류 수입국별 수입량, 1991

단위: 톤

	미국	대만	뉴질랜드	타이	호주	한국	중국	멕시코	벨기에	총 수입량
호박	4,776		48,791		777	221		25,080		101,081
양파	23,509	14,490	10,853	8,245	3,711	270	48			62,781
양배추	20,977	10,393		34	91	8,869	3,747	45	1	45,543
아스파라카스	3,132		1,493	1,645	2,909		24		2,324	12,481
채두류		7,667					4,709	25		12,621
당근	219	9,259	26			69	433			10,006
파종류	13	46			137	107	5,938		111	6,404
마늘	76	11					3,832			3,945
버섯류	56	631				622	1,677	15		3,541
세로리	1,526							100		1,626
오이						709				709
꽃상치									423	632

주: 호박의 경우 톤카로 부터 21,114톤 수입함.

버섯류의 경우 캐나다로 부터 415톤 수입함.

버섯류의 한국에는 북한산이 309톤 포함되었음.

자료: 1991년도 수입청과물통계자료.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2.

2.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전망

일본의 야채 생산 및 수요 예측을 보면 (표 2-6)과 같이 1987년 대비 2000년에는 식부면적이 62만ha에서 1.6% 증가한 63만ha에 총생산량은 1,660만톤에서 5.8% 증가한 1,916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총수요량은 같은 기간에 1,771만톤에서 8.2% 증가한 1,916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어 자급률은 93.7%에서 91.7%로 약 2%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야채 자급률이 2000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1인당 수요량이 같은 기간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효과도 크지 않아 총수요량이 8.2%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서 총생산량은 식부면적 증가와 단수 증가로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 일본의 야채 생산 및 수요 예측

(1987년 대비 2000년)

	1987	2000	2000/1987
식 부 면 적 (만ha)	62	63	101.6
(A) 생 산 량 (만 톤)	1,660	1,757	105.8
(B) 총 수 요 량 (만 톤)	1,771	1,916	108.2
1 인 당 순 식 료 (kg)	110.8	111.0	100.2
(A / B) 자 급 률 (%)	93.7	91.7	

자료: 식료수급표, 「농림수산대신관방조사과」, 평성 4년 3월.

표 2-7 일본의 야채 식부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천ha, 천톤

	1980	1985	1987	1988	1989	1990
식부면적	644	639	637	636	633	625
생산량	16,218	16,216	16,598	16,083	16,235	15,739
수입량	468	790	1,047	1,562	1,502	1,551
수출량	1	1	4	2	2	2
자급률	97.2	95.4	94.1	91.2	91.5	91.0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통계정보부」, 각년도.

그러나 (표 2-7)의 야채 식부면적 및 생산량 추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식부면적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해 1990년 현재는 63만ha로 2000년의 예측치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량 역시 1,574만 톤으로 2000년 예측치의 9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야채 자급률도 91%로 2000년의 예측치 91.7% 보다 0.7%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일본의 야채 생산량은 식부면적 감소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채 식부면적 감소 추세를 주요 품목별로 보면 (표 2-8)과 같이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품목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경채류 중에서도 시설에서 재배되는 시금치와 파종류 등 고급채소의 식부면적은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식부면적 감소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근채류와 과채류라 하겠으나 근채류 중에서는 무가 가장 감소율이 높고, 과채류 중에서는 주로 시설에서 재배되는 토마토와 오이, 그리고 가지 등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

표 2-8 일본의 주요 야채류 품목별 식부면적 추이

단위: 천ha

	1980	1985	1987	1988	1989	1990	1990/80
무	72.6	66.9	64.9	63.2	62.3	60.9	83.9
당 근	24.2	25.0	23.8	24.5	24.0	23.5	97.1
배 추	38.5	33.9	31.9	30.6	29.9	28.7	74.5
양 배 추	42.6	42.4	41.5	41.2	41.4	40.4	94.8
시 금 치	23.8	26.0	27.2	27.5	27.5	27.4	115.1
파	23.8	24.0	24.0	23.9	24.0	24.1	101.3
양 파	28.2	30.8	29.4	28.4	28.2	29.0	102.8
가 지	21.5	19.4	18.7	18.2	17.7	17.2	80.0
토 마 토	19.3	15.3	15.1	14.9	14.5	14.2	73.6
오 이	25.3	23.4	22.3	21.6	20.9	20.2	79.8
호 박	16.2	17.5	17.7	18.7	19.3	18.5	114.2
피 만	4.7	4.7	4.7	4.7	4.8	4.6	97.9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통계정보부」, 각년도.

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시설채소의 경우 옆채류에 비해서 과채류의 식부면적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금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1.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

대일 채소류 수출은 (표 3-1)의 농축산물 품목별 대일 수출 실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에는 저림 및 냉장채소의 수출액 순위가

표 3-1 주요 농축산물의 품목별 대일 수출 실적

단위: 천\$

순위	1980		1985		1990	
1	백삼류	18,252	백삼류	26,269	돼지고기	31,189
2	면양·산양고기	15,801	면양 산양고기	21,733	백삼유	30,731
3	일시저장과실	12,650	채소종자	2,978	벗짚제품	14,586
4	육류 식용설육	8,444	양배추	829	냉동딸기	11,965
5	저림 냉장채소	4,595	냉동과실	734	김치	10,364
6	대두유박	3,163	돼지고기	619	채소종자	7,212
7	엽연초	3,151	우모과	556	복숭아통조림	3,873
8	채소종자	1,436	토마토	121	냉동가공채소	1,411
9	양배추	1,170	배	70	신선채소	330
10	돼지고기	946	고추, 마늘	21	절화·	98

자료: 1990년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일 농수산물수출전략 품목육성대책」, 1992. 2.
1980년과 1985년은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양배추 등 신선채소 수출액 순위에 비해서 높은데 비해서 1985년에는 가공채소보다는 양배추, 토마토, 고추, 마늘 등 신선채소의 수출액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채소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990년에는 김치 등 가공채소의 수출액이 크게 증대한데 비해서 신선채소 수출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채소 수출이 저조함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3-2)의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실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의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수출 품목이 크게 변화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최근의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실적을 보면 1989년 4,512

표 3-2 일본의 한국산 신선야채 수입량 추이

단위: 톤

	1989	1990	1991	1991년도 수입량의 월별 구성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토 마 토	-	-	10														100	
양 파	3,069	-	270								97					1.5	1.5	
마 늘	14	1	-															
파 종 류	23	25	107	0.5												2.5	74	
레 타 스	-	-	16														100	
양 배 추	248	156	8,869	0.3	13	12	3.3	2.3	0.1						2.0	42	25	
당 근	-	6	69														25	75
근 채 류	61	1	121														22	78
오 이	31	143	709	20	10	2									14	37	17	
기타두류	-	-	1															100
아스파카스	1	-	-															
송이버섯	797	823	304						0.0	1	3	50	46	0.0				
기타버섯	12	14	9	33	22	11	11	2									22	
고 추 류	-	-	5														100	
호 박	240	143	221							92	5		3					
기타야채	16	2	0.4					100										
합 계	4,512	1,314	10,712	1.6	12	10	3	2	0.1	4	0.3	1	4	38	24			

자료: 1991년도 수입청과물통계자료,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2.

톤에서 1990년에는 1,314톤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1991년에는 10,712톤으로 무려 2.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양배추가 8,869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오이 709톤, 송이버섯 304톤, 양파 270톤, 호박 221톤 순으로 나타났다. 양배추와 오이, 그리고 파종류와 근채류의 경우 수출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과거에 수출물량이 많았던 양파와 송이버섯, 마늘 등은 오히려 감소 내지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파의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데 비해서 양배추를 비롯해 오이와 근채류 및 파종류는 매년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터스 토마토 등 신규품목의 수출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일본의 신선채소류 품목별 수입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장성이 강하고 신선도 유지가 용이한 품목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장성이 약할뿐만 아니라 운송에 어려움이 많고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채소의 경우 수입선을 가장 인접국인 우리 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특히, 신선오이의 경우 전량 우리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 시기를 보면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1월과 12월에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이 시기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버섯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품목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의 단경기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배추와 오이는 다소 수출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시기별 수출물량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양배추의 경우 수출기간이 10월에서 익년 6월까지 무려 9개월에 걸쳐서 수출하고 있으나 결국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는 11월과 12월인데 반해서 오이의 경우는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 수출 기간은 양배추에 비해서 다소 짧으나 수출 물량이 일정 시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품목에 비해

서 신선오이의 경우 대일 수출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오이와 같이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고급 채소의 대일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선채소류 중에서 최근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대일 수출 전망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대일 신선오이 수출 전망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품종은 흰가시 계통의 백침오이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검은가시 오이, 즉 흙침 오이와는 다른 품종이다. 따라서 현재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은 전량 계약재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생산관리와 물품 수집 및 공급업체는 지역 원예협동조합과 종묘회사 및 일반 수출업자, 그리고 금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정부지원 수출기구인 농산물유통공사 등이다. 또한 일본의 수입업체는 대형 슈퍼체인 이토요까또를 비롯해 다이에, 이즈미야 등 대량 소비처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일 신선오이 수출실적을 보면 (표 3-3)과 같이 1988년 8톤에서 1992년에는 1,160톤으로 5년간에 무려 14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2년(1992. 10~1993. 3)의 당초 계약분은 1일 20톤씩 5개월에 총 2,200톤을 계획했으나 기후조건 및 국내 수출여건 변화로 1,160톤에 지

표 3-3 대일 신선오이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1988	1989	1990	1991	1992	비 고
수출량	8	31	143	709	1,160	당초계획은 1일 20t에 5개월 2,200t임
수출액	12	44	288	1,472	2,362	

주: 비고란의 당초계획은 1992년 계약물량임.

자료: 야채시황과 수입, 「일본 office JL」, 1993(자료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나지 않고 있어 미수출분을 감안하면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 물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 물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일본의 신선채소류 생산 및 수입량 변동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입 물량 역시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4)는 1991년도 일본의 도매시장(1, 2류) 월별 오이 입하량과 kg당 가격을 일본산과 한국산 수입품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 국내산 총 입하량은 584천톤으로 전체의 50% 이상이 5~9월 사이에 입하되고 있으며, 남은 50%는 1~4월에 30%와 10~12월에 20% 입하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산 오이의 kg당 도매가격은 평균 298엔으로 10월에서 익년 1월 사이가 가장 높아 평균가격을 상회하는데 반해서 2월에서 9월 사이는 평균가격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하 최성기인 5월에서 7월에는 평균가격을 크게 밑돌아 이 시기의 오이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일본의 월별 오이 도매물량 및 가격, 1991

단위: 천톤, 톤, 엔/kg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	물량	584	34	40	46	51	65	61	64	60	55	39	34	37
본	비율	(100)	(6)	(7)	(8)	(9)	(11)	(10)	(11)	(10)	(9)	(7)	(6)	(6)
산	가격	298	417	279	255	313	174	215	187	279	296	524	470	427
한	물량	709	142	71	14	-	-	-	-	-	-	99	261	122
국	비율	(100)	(20)	(10)	(2)	-	-	-	-	-	-	(14)	(37)	(17)
산	가격	260	266	230	195	-	-	-	-	-	-	241	261	295
가격대비		87.3	63.8	82.4	76.5	-	-	-	-	-	-	46.0	55.5	69.1

주: 일본은 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도매가격으로 물량은 천톤임.

한국산은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으로 물량은 톤임.

가격대비는 일본산 가격에 대한 한국산 가격 비중임.

자료: 1991년도 수입청과물통계자료,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2.

한편 한국산 수입오이의 입화량은 총 709톤으로 10월에서 익년 3월 사이에 입화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약 90% 이상이 10월에서 익년 1월에 입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오이의 수입은 일본의 단경기에 주로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한국산 오이 가격은 일본산의 46%에서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일본의 가공용 오이 수입량을 보면 (표 3-5)와 같이 1988년 55천톤에서 1992년에는 62천톤으로 13%의 수입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물량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서 태국과 미국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신선오이 1,160톤은 전량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989년 미국으로부터 201톤을 115천불에 수입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해의 수입량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산 신선오이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가공용 및 신선오이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풀이되나 그 중에서도 가공용 물량이 신선오이에 비해서 큰 것은

표 3-5 일본의 지역별 가공오이 수입량 추이

단위: 톤, 천\$

	1988		1989		1990		1991		1992	
	물량	금액								
합 계	54,905	24,585	71,662	29,676	58,323	27,493	60,618	29,042	62,249	30,493
중 국	43,188	17,159	57,404	21,209	46,188	18,901	51,158	22,882	54,799	25,478
태 국	4,869	2,051	9,701	4,937	8,832	5,257	6,256	3,598	4,547	2,551
미 국	2,105	1,295	1,210	807	1,443	934	977	303	1,198	698
기 타	4,743	4,085	3,347	2,723	1,860	2,401	2,227	2,259	1,705	1,766
신선오이	8	12	231	159	143	288	709	1,472	1,160	2,362

주: 1989년 신선오이 수입량 및 수입금액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201톤과 115천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수출유망농산물 해외시장(채소류, 화훼류), 「농수산물유통공사」, 1992.

표 3-6 일본의 오이 주산지별·용도별 출하량 추이

단위: 톤

	주산지 출하량(A)	용도별		용도별 구성비(%)	
		생식용(B)	가공용(C)	생식용	가공용
1975	797,502	734,573	62,929	92.1	7.9
1980	744,576	675,317	69,259	90.7	9.3
1985	780,992	704,173	76,819	90.2	9.8
1990	637,600	591,600	46,000	92.8	7.2
1990/75	80.0%	80.5%	73.1%	100.8	91.1

자료: 농림수산통제,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각년도.

(표 3-6)의 용도별 출하량 추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산 수입에 따른 국내산 가공용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오이 주산지의 용도별 출하량 추이를 보면 주산지 출하량이 1975년 약 80만톤에서 1990년에는 약 64만톤으로 약 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같은 기간에 생식용은 전체 출하량과 거의 같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가공용은 7%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공용 비중도 1975년에는 7.9%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1985년에는 9.8%까지 증가했으나 1990년 현재는 7.2%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산 오이의 생식용 비중을 늘리는 반면 가공용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오이로 대체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가공용 오이의 국내 부족분은 금후에도 지속해서 가격이 저렴한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선오이의 경우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조건임으로 운송시간이 짧은 인접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주변국의 오이 생산 기술수준 및 운송조건을 감안할 때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기간은 재배 기술수준이나 운송조건이 이들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우리 나라로부터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일본의 년도별 오이 생산량 변동 추이

단위: ha, 톤

	식부면적	수확량 (A)	출하량 (B)	출하비율(B/A)
1970	31,500	964,600	639,000	65.2%
1975	26,200	1,023,000	821,000	80.3%
1980	25,300	1,018,000	834,100	81.9%
1985	23,400	1,033,000	852,500	82.3%
1990	20,000	931,100	769,600	82.7%
1991	19,600	889,100	734,700	82.6%
1991/70	62.2%	92.2%	115.0%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각년도.

한편 일본의 오이 생산량 변동 추이를 과거 20년간에 걸쳐서 보면 (표 3-7)과 같이 1970년 이후 식부면적이 매년 감소해 1991년에는 1970년 대비 62.2%인 19,600ha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은 단위당 생산량 증가로 1985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식부면적의 급속한 감소로 생산량도 크게 감소해 1991년에는 1970년 대비 92.2%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출하량도 생산량 감소와 동시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에 대한 출하 비율은 같은 기간에 65.2%에서 82.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재배 농가의 생식 또는 가공용 자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자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상품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3-8)은 일본의 주요 주산지별 오이 생산량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 대비 1991년 생산량은 1,018천톤에서 889천톤으로 약 23%의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주요 주산지의 생산량도 같은 기간에 520천톤에서 457천톤으로 전국과 같은 22%의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생산량에 차지하는 주산지의 생산량 역시 50%선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8 일본의 주요 오이 주산지별 생산량 변동 추이

단위: 톤

	1980	1985	1991	1991/1980
福 島	80,900(15.6)	91,200(18.0)	79,800(17.4)	98.6%
茨 成	47,900(9.2)	45,400(8.9)	39,100(8.6)	81.6%
群 馬	76,100(14.7)	85,500(16.8)	78,300(17.1)	102.9%
埼 玉	83,900(16.2)	79,700(15.7)	70,300(15.4)	83.8%
千 葉	67,700(13.0)	51,800(10.2)	42,500(9.3)	62.8%
長 野	44,200(8.5)	37,700(7.4)	29,800(6.5)	67.4%
愛 知	32,900(6.3)	27,800(5.5)	24,100(5.3)	73.3%
高 知	38,700(7.4)	35,600(7.0)	31,600(6.9)	81.7%
宮 崎	47,400(9.1)	53,200(10.5)	61,900(13.5)	130.6%
주산지합계(A)	519,700(100)	507,900(100)	457,400(100)	88.0%
전국 합계(B)	1,018,000	1,033,000	889,100	87.3%
(A)/(B)	51.1%	49.2%	51.5%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각년도.

그러나 생산량 변동을 주산지별로 보면 산지에 따라 생산량 감소율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千葉縣을 비롯해 長野縣 및 愛知縣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량 감소율이 현저한데 반해서 宮崎縣과 群馬縣은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도 宮崎縣을 제외하면 최근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현재 생산량 감소율이 낮은 지역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후 생산량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주산지 중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남부지역의 宮崎縣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비중은 전체 주산지 생산량의 약 14%에 지나지 않아 금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다 해도 전체 생산량 감소율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의 대도시 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적인 입지조건이 우리 나라

와 유사해 운송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수출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3-9)의 오이 주산지별 계절별 생산량 변동 추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수출 시기와 가장 경합관계에 있는 동기와 춘기(12월~6월)의 경우 群馬縣을 제외한 東京 주변의 다른 지역은 크게 감소한데 반해서 남부 지역인 宮崎縣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과의 경쟁관계가 대일 수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埼玉縣을 비롯해 群馬縣 등 대도시 東京 주변지역의 생산량 감소율이 현저할뿐만 아니라 宮崎縣과 경쟁지역인 高知縣의 생산량 감소율이 현저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과의 경쟁관계는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 3-10)의 오이 5대 주산지 계절별 도매시장 출하 비중을 우리 나라 수출 오이와 경합관계를 가지는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 보면 10월부터 11월에는 대도시 東京市場 주변지역인 群馬縣과 埼玉縣이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2월에서 익년 2월 사이는 남부지역인 宮崎縣과 高知縣에서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경합관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표 3-9 일본의 주요 오이 주산지별·계절별 생산량 변동 추이

단위: 톤

동기 및 춘기(12월~6월)				하기 및 추기(7월~11월)			
지 역	1980(A)	1991(B)	B/A	지 역	1980(A)	1991(B)	B/A
群 馬	48,300	52,200	108.1	北 海 道	27,100	21,600	79.7
埼 玉	63,100	54,200	85.9	岩 手	25,900	26,800	103.5
千 葉	42,600	29,100	68.3	福 島	66,200	68,300	103.2
高 知	36,400	30,100	82.7	群 馬	27,800	26,000	93.5
宮 崎	36,700	51,000	139.0	長 野	44,200	24,100	54.5
합 계	227,100	216,600	95.4	합 계	191,200	166,800	87.2

자료: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각년도.

표 3-10 일본의 오이 5대 주산지 계절별 출하량 구성비(1990년산)

	12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群馬			19.9	30.9	31.1	31.3	24.6			12.9	34.2	38.9	23.9
埼玉	5.9			16.7	27.1	36.3	41.7				24.7	23.2	22.0
宮崎	45.5	37.3	28.3	21.8	15.6	9.1					15.6		18.3
福島							12.6	41.3	46.5	44.4			23.1
高知	37.0	32.0	22.0	11.7				9.8	16.8				
山形								15.0	21.7	15.8			
岩手												14.2	
熊本								15.0	12.5	14.6			
長野											11.5	13.1	12.7
千葉	5.5	11.1	19.7	18.9	15.9	12.4							
愛知	6.1	11.0	10.1										
茨城					10.3	10.9	11.3			12.3	14.0	10.6	
秋田									9.8				
鹿兒島		8.6											
北海道								11.9	9.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원예통계, 「농림수산물통계정보부」, 1992.

와 같은 결과는 東京市場 주변인 群馬縣이나 埼玉縣의 경우 지리적으로 북부지역이므로 10월 이전에 기온이 높을 때 파종해서 출하하기 때문이며, 남부지역인 宮崎縣이나 高知縣의 경우 동기에도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므로 타지역이 생산하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들 지역 보다도 동기에 기온이 높은 지역은 남부에도 많은 지역이 있으나 그들 지역은 대도시와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이 전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이나 재배기술이 주산지에 비해서 떨어져 경쟁력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수출 오이의 경쟁상대는 群馬縣을 비롯해 埼玉縣, 그리고 宮崎縣과 高知縣 등 4개 지역을 들 수가 있으나 宮崎縣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매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경쟁관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가장 큰 경쟁상대는 역시 宮崎縣이나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도서지역으로 우리 나라와 교통적인 입지 조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분석

1. 일본산과의 가격 경쟁력

대일 오이 수출은 이미 일본의 오이 수입국별 수입 실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공용이 아닌 생식용 신선오이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기 역시 일본의 단경 기인 10월에서 익년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시기 역시 한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수출 품목도 생식용 신선오이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수출시기 역시 일본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가공용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단가가 절대적으로 높아 최근에는 대일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신선오이 역시 이 시기를 제외하면 일본 국내산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공용 오이 수입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이 가장 많고, 이어서 태국과 미국, 불란서 등 전세계를 상대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가공품도 (표4-1)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전이 가능하게 처리한 것과 식산 또는 식염으로 조제한 완전가공품 중에서 설탕을 가미한 것과

표 4-1 일본의 오이 가공품별 주요 수입국 및 수입량

단위: 톤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입국(수입량순위)
일 시 적 처 리	54,561	71,251	57,557	60,180	61,718	중국, 태국, 미국, 대만,
완 제 품 (가 당)	251	238	196	196	206	베트남, 폴란드, 동서독,
완 제 품 (무 가 당)	93	173	570	242	325	헝가리, 체코, 미국, 불란 서, 중국, 벨기, 호주

자료: 야채시황과 수입, 「일본 office JI」, 1993(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미하지 않은 것 등 크게 3가지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수입선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량이 가장 많은 1차 가공품은 주로 중국과 태국,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완전제품 중에서도 설탕을 가미한 것은 폴란드와 헝가리,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설탕을 가미하지 않은 것은 주로 미국과 불란서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1991년 현재 오이 1차 가공 수입가격을 주요 수입국별로 보면 (표 4-2)와 같이 베트남이 kg당 41엔으로 가장 낮고, 이어서 중국 56엔, 태국 72엔, 쓰리랑카 76엔, 미국 86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산의 경우 kg당 172엔으로 베트남보다는 무려 4배나 높고, 미국에 비해서는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일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태국에 비해서는 2배에서 3배나 높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극히 불리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가공용 오이의 대일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수출 가능성은 가격면에서 불리해 거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일본의 1차 가공오이 주요 수입국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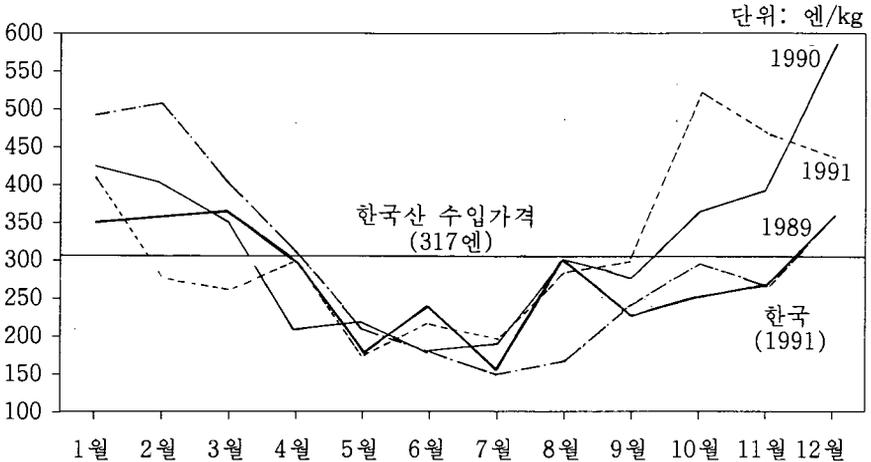
단위: 엔/kg

	중 국	태 국	한 국	미 국	베트남	쓰리랑카	평 균
가 격	56	72	172	86	41	76	58
지 수	32.6	41.9	100	50.0	23.8	44.2	33.7

주: 지수는 한국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의 각국 수치임.

자료: 야채시황과 수입, 「일본 office JI」(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4-1 오이 월별 도매가격 비교(일본 대 한국)



주: 한국(1991)은 한국의 월별 도매가격에 수출 및 수입 비용을 포함한 가격임. 한국산 수입가격은 현재 수출가격에 수출 및 수입 비용을 포함한 가격임. 단, 한국산 가격은 통관시 훈증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며, 보험료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임. 또한 컨테이너 규격은 10F와 20F의 평균치를 적용했음.

(그림 4-1)은 일본의 월별 신선오이 도매가격과 한국의 도매가격 및 수출가격을 수출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비교한 것이다. 년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9월에서 익년 2월까지의 우리 나라 도매가격이 일본보다 낮아 가격 경쟁력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성출하기인 3월에서 8월 사이는 일본과 거의 같은 가격 수준에 있어 이 시기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산 신선오이 수입 가격도 이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수입 시기도 대개 9월에서 익년 3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이 시기 이외의 시기에 일본산과 경쟁을 위해서는 수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생산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수출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특히, 한국산 가격의 일본 도착가격은 식물 검역시 문제가 없어 훈증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며, 또한 컨테이너 규격도 10F와 20F의 중간

치를 적용한 가격임으로 만약에 식물 검역에 문제가 생겨 훈증소독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수출 물량이 적어 10F 콘테이너를 사용할 경우는 수출 단가가 그만큼 증대해 대일 수출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산과의 수출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는 물론 재배단계의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수출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일본산과의 품질 경쟁력

현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신선오이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생식용 백침오이로 계약자가 품종을 지정하고 있어 종자도 일본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은 재배기술에 따른 상품성 및 상품의 관리 또는 처리과정에 따른 상품화율로 비교할 수가 있다. 다만 생산된 상품의 당도 등 성분문제를 비롯해 색상문제는 우리 나라의 자연적인 입지조건이 일본에 비해서 유리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 경쟁력은 성분문제보다는 상품성, 즉 상품의 규격 및 등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농산물 규격화와 품질의 등급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넓은 지역에 대량의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유통의 합리화와 거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품목에 따라서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어 상품의 내용물은 물론 포장까지 귀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서 규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도 규격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가지와 토마토의 경우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규격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별로는 자체적으로 판매전략을 위해 (표 4-4)와 같이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보다도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일본의 신선채소 규

표 4-3 일본의 신선야채류 표준규격

단위: 중량/개, 개수/상자, cm/1개길이

	양 배 추		가 지		토 마 토		오 이		양 파	
	중 량	개 수	크 기	개 수	1등외	1등품	크 기	중 량	갑고중	편평중
3L			25cm	30~34						
2L	2kg이상	8개	22~25	35~39	15개내	15개내	23cm	120 g	9cm	9.5cm
L	1.5~2.0	9~11	19~22	40~44	18, 20	18~20	21~23	100~120	7~9	8~9.5
M	0.9~1.5	12~16	16~19	45~50	24	22~24	19~21	80~100	6~7	7~8
S	0.7~0.9	17~12	13~16	51이상	28, 30	28, 30	16~19	65~ 80	5~6	6~7
2S					32, 35	33~35				

주: 양배추는 봄재배, 가지는 중장계통 5kg 용기, 토마토는 품종별, 양파는 품종임.
 자료: 농림수산성.

표 4-4 일본의 산지별·품목별 표준규격

	양 배 추	가 지	토 마 토	오 이	양 파
愛 知	LL, L, M, S	LL, L, M, S, SS	LLL, LL, L, M, S, SS		LL, L, M, S
群 馬	3L, LL, L, LA, MS	2L, L, M, 2S		A(2L, L, M, S, 2S), B(L, M, S)	
千 葉	LL, L, M, S, SS		A(LL, L, M, S, SS, SSS), B(L, M), C		
神奈川	3L, 2L, L, M, S, B		2L, L, M, S, 2S, B		
長 野	3L, 2L, L, M, S, B				
高 知		A(2L, L, M, S), B(L, M), C			
福 岡	A, B, C(3L, 2L, L, M)				
埼 玉		2L, L, M, S, BL, BM, BS, B, C		L, M, S, SS	
茨 城			A(2L, L, M, S, 2S), B(2L, L, M, S)		
能 本			3L, 2L, L, M, S, 2S, 3S		
福 島				L, M, S A(L, M, S, 2S), B(L, M, S), C(M, S)	
北 海 道					2L, L대, L, M, S
兵 庫					2L, L, M, S
佐 賀					2L, L, M, S

자료: 농림수산성.

격화가 다양하고 복잡함을 알 수가 있다. 품목별로는 가지가 5개에서 15개 규격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오이 3~12, 토마토 6~11, 양배추 4~6, 양파 4~5개 규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양배추의 경우 群馬縣의 규격이 가장 많고, 가지는 福岡縣, 토마토는 千葉縣과 茨城縣, 오이는 宮崎縣, 양파는 北海道로 나타나 품목별 특화지역일수록 표준규격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4-5)는 동경 大田 도매시장의 품목별·규격별 경락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정한 품목별 표준등급은 양배추 4등급, 가지 5등급, 토마토 5등급, 오이 4등급, 그리고 양파가 4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품목이 표준등급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표준등급이 5개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3개의 등급으로 거래되고 있어 상품의 규격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등급별 경락가격을 보면 토마토의 경우 규격이 클수록 가격이 상대

표 4-5 주요 야채류의 규격별 도매시장 가격 (1992년 12월 8일 현재)

단위: 엔/kg

등 급	양 배 추	가 지	토 마 토	오 이	양 파
5L			412		
4L	14		470		
3L	21		138		
2L	27	356	195	124	58
L	38	397	245	268	49
M	17	470	259	305	50
2M			312		
S	8		202	319	72
2S			164	302	
3S			205		
4S			298		
5S			238		
6S			180		
평 균	33	437	226	299	50

자료: 동경도 중앙도매시장(大田시장 A회사).

적으로 높는데 반해서 그 외의 품목은 규격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규격이 작을수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의 규격은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규격이 작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경우 규격이 다양한데 반해서 우리 나라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규격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수출 상품의 품질면에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예로서 (표 4-6)은 우리 나라에서 수출한 신선오이를 일본의 수입 판매상이 규격 및 품질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총수입량 1,203상자 중에서 불량품이 25.4%인 306상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규격별로 보면 S규격이 68%로 가장 많고, 이어서 M규격 23.2%, L규격 8.8% 순으로 S규격의 불량률이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량품의 규격별 불

표 4-6 일본 수입상의 한국산 수입 오이 품질 평가

단위: 상자(10kg)

	S 규 격	M 규 격	L 규 격	합 계
양 호 (A)	353(39.4)	427(47.6)	117(13.0)	897(100)
불 량 (B)	208(68.0)	71(23.2)	27(8.8)	306(100)
합 계 (C)	561(46.6)	498(41.4)	144(12.0)	1,203(100)
(B)/(C)	37.1	14.3	18.8	25.4
과장이 짧음	144(69.2)	41(57.7)	23(85.2)	208(68.0)
과경이 가늘음	40(19.2)	10(14.1)	-	50(16.3)
꼬리부분이 굵음	12(5.8)	12(16.9)	2(7.4)	26(8.5)
부식한 것	12(5.8)	2(2.8)	-	14(4.6)
색상이 불량함	-	6(8.5)	2(7.4)	8(2.6)
판 매 금 지 (D)	175(94.1)	11(5.9)	-	186(100)
(D)/(C)	31.2	2.2	-	15.5
(D)/(B)	84.1	15.5	-	60.8

주: 한국의 생산농가는 남부지역 D군의 40농가 상품.

S:19cm-20cm,M:20cm-22cm,L:22cm-23cm.

자료: 일본I주식회사수집자료(1992년 10월 27-28일).

량형태 구성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과장(果長)이 짧은 것이 모든 규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상이 요구하는 표준규격에 맞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규격미달이 S규격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과거에 수입한 S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될수 있는 한 규격에 맞게 작은 것을 생산해 달라고 요구한데서 빚어진 결과라 한다.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불량품은 과경(果徑)이 너무 가는 것과 꼬리 부분이 굵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수입량의 15.5%인 186상자를 판매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격별로는 S규격이 전체 물량의 94.1%로 가장 많고, 이어서 M규격 5.9%, L규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격이 작은 것일수록 상대가 원하는 규격에 맞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생산농가가 일본의 소비자 기호에 대해 전혀 사전지식 없이 단지 관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 나라 오이 생산은 가공용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이 크지 않으면 수확하지 않는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 가공용보다는 생식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육질이 가장 부드러운 S규격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식생활 소비구조가 서구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식용 선호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으며, 식품의 구입 및 소비방식도 과거의 대량 구입에 의한 비축 소비에서 최근에는 소량 구입 소비 청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규격이 큰 것이나 물량이 많은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신선채소류 판매방식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생산방식도 소비자 선호에 부합되도록 될수 있는 한 규격이 작은 품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규격이 소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시장에서 현지 상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상품의 규격화와 등급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제 5 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은 물론 운송 및 수출입 절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 신용도 증진은 물론 수출업체간의 과당 경쟁에 의한 시장질서 물란과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1. 대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은 이미 품목별 수출 현황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입선 전환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에 있다. 즉, 저장성이 강하고 운반에 어려움이 없는 품목은 운송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한데 반해서 운반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급

신선채소는 운송시간이 짧은 인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은 저장성이 강한 품목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고급 채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저장성이 강한 품목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고급 품목은 지리적인 입지조건으로 경쟁력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도 국내 농업여건 변화와 주변국의 농업여건 변화, 그리고 운송수단 및 기술의 발달로 금후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신선채소의 지속적인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은 물론 수출과정의 제반비용, 즉 운송비를 비롯해 제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생산농가의 경영 개선 및 수출비용의 절감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가. 생산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현재 대일 수출 오이는 전량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재배지역은 우리 나라 오이 주산단지중의 하나인 전라남도 광산군을 비롯해 담양군, 나주군, 보성군, 강진군,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등 8개 군과 경상북도의 성주군, 그리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시범기술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도적인 지역은 전라남도로 재배면적은 약 10ha에 130호 정도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농가는 약 70호 정도로 전체 농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농가 중에서 재배규모와 재배경력을 감안해 가장 표본이 되는 10농가를 (표 5-1)과 같이 임의선정하였다. 또한 표본조사 농가는 나주군에서 7호, 담양군에서 3호, 합계 10호를 선

표 5-1 조사지역 및 규모별 조사호수

		단위: 호		
		500평이하	500평이상	합 계
나 주 군		3	4	7
담 양 군		2	1	3
합 계		5	5	10

표 5-2 단위당 생산비 수준별 10a당 투입비용 및 산출량

단위: 천원						
	kg당생산비	규모(평)	단수(kg)	경 영 비	1차생산비	2차생산비
최 저 (A)	843원	450	8,164	3,132	6,285	6,884
최 고 (B)	1,278원	700	4,285	2,662	4,831	5,476
평 균 (C)	1,120원	528	6,629	3,722	6,551	7,236
B/A	151.6	155.6	52.5	85.0	76.9	79.6
A/C	75.3	85.2	123.2	84.2	73.8	95.1
B/C	114.1	132.6	64.6	71.5	95.8	75.7

정했으며, 경영규모는 500평을 기준으로 크게 분류했다.

우선 조사농가의 단위당 생산비를 보기 위해 kg당 생산비 수준별 투입비용 및 산출량을 10a당으로 나타낸 것이 (표 5-2)이다. kg당 생산비는 최저 843원에서 최고 1,277원까지 무려 5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kg당 평균 생산비가 1,120원으로 최고 생산비의 88%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배농가의 단위당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10a당 투입비용을 보면 kg당 생산비가 낮은 농가일수록 경영비는 물론 1, 2차 생산비가 높은 농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배농가의 호당 경영규모와 10a당 수량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해 단위당 투입비용은 낮는데 반해서 재배방식은 소규모 농가에 비해서 조방화로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

졌다. 따라서 kg당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위당 투입비용의 절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단위당 수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비배관리를 비롯해 병충해 방제 및 재배관리를 들고 있다. 따라서 오이 재배 역시 이들 요소에 의해서 단수가 결정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출 오이 재배농가의 경우는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3)은 오이재배 농가의 단위당 수량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비배관리는 유기질비료 투입액을, 병충해 방제는 농약 투입액, 그리고 재배관리로는 노동력 투입액을 기준으로 10a당 수확량을 최저치와 최고치에 대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단위당 수확량이 높은 농가의 경우 유기질비료 투입액과 노동력 투입액이 단위당 수확량이 낮은 농가에 비해서 많은데 비해서 단위당 농약 투입액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유기질비료의 증투와 재배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의 증투는 단위당 수확량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농약의 증투는 단위당 수확량과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5-3 단위당 수확량 수준별 요소 투입액

단위: 천원

	단수(kg)	규모(평)	kg당생산비 원	유기비료	농 약	노 력 비
최 저 (A)	4,286	700	1,278	385	120	2,370
최 고 (B)	10,000	300	912	750	43	5,149
평 균 (C)	6,629	528	1,120	554	155	3,324
B/A	233.3	42.9	71.4	194.8	35.8	217.3
A/C	64.7	132.6	114.1	69.5	77.4	71.3
B/C	150.9	56.8	81.4	135.4	27.7	154.9

이와 같은 경향은 경영규모와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 규모에 따른 재배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 하겠다. 즉, 유기질비료의 증투는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건강한 육묘와 생육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 또한 재배관리에 필요한 노동력 증투는 식물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해 농약의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배관리 및 재배관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가는 병충해 발생이 빈번해 그만큼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반해서 단위당 수확량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재배농가의 농약 사용은 병충해의 사전방제보다는 사후에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 그에 따른 농약 사용량 역시 증가해 단위당 수확량과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단위당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시용에 의한 지력 증진과 집약적인 재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조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위당 수확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수출 오이 생산농가의 kg당 수출 단가를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수출 규격 미달품의 증가라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출용 오이는 품종이 달라 국내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팔로 개척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소수의 수요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수출 가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자가소비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처리하고 있어 그만큼 수출 상품의 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배농가의 수출 규격 미달품 정도별 kg당 생산비를 보면 (표 5-4)와 같이 최저 1.3%에서 최고 42.8%의 높은 단위당 생산비를 나타내고 있어 그만큼 수출 단가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성 면에서 불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전체 생산농가의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규격 미달품의 발생으로 19.2%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출 규격 미달품의 최소화야말로 수출 단가를 낮추는 하나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표 5-4 수출 규격 미달품 정도별 kg당 생산비(10a당)

단위: kg, 원/kg

규격미달품 비율(%)	생산량	수출량	규격미달량	kg당 생산비		B/A
				전체(A)	수출(B)	
1	6,154	6,077	77	1,083	1,097	1.3
2	8,164	8,000	164	843	861	2.1
10	8,214	7,392	821	1,052	1,213	15.3
15	4,286	3,643	643	1,278	1,503	17.7
20	6,101	4,880	1,220	1,182	1,477	25.0
30	6,857	4,800	2,057	1,088	1,554	42.8
평균(14.8)	6,629	5,683	947	1,120	1,335	19.2

(표 5-5)는 재배농가의 단위당 투입비용을 최고 농가와 최저 농가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다. 재배농가의 평균 7,236천원에 비해서 최저 농가는 5,476천원으로 24%가 낮는데 반해서 최고 농가는 26.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 농가에 비해서 최고 농가의 단위당 투입비용은 66.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비용별로 비교해 보면 최고 농가의 경우 고정자본 용역비만 최저 농가의 39% 수준으로 낮을 뿐 그 외의 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력비는 자가, 고용 모두 최저 농가에 비해서 최고 농가의 경우 2.1배에서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농가 평균에 비해서도 1.2배에서 1.6배나 높아 노동력 투입비용이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최고 농가의 kg당 생산비는 단위당 수출량이 최저 농가에 비해서 2.3배, 농가 평균의 1.5배나 높아 각각 71%와 81%의 낮은 생산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10a당 투입비용이 가장 많은 농가의 kg당 생산비가 낮은 것은 이미 단위당 생산성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규모가 작은 농가일 수록 집약적인 생산을 통한 단위당 수량을 높이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집약적인 생산으로 단위당 투입비용이 절대적으로 높아도 단위당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음을 감안할 때 단위당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의 집약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5 재배농가의 10a당 투입비용 비교

단위: 천원

	투입 비용	중간재 비	노력비		자본용역비			생산비 (원/kg)	단수 (kg)	면적 (평)
			고용	자가	유동	고정	토지			
최저(A)	5,476	2,461	201	2,169	108	238	300	1,278	4,286	700
최고(B)	9,125	3,385	592	4,556	197	92	300	912	10,000	300
평균(C)	7,236	3,227	495	2,829	150	223	313	1,120	6,629	528
B/A	166.6	137.6	295	210	182	39	100	71	233	43
A/C	75.7	76.3	41	77	72	107	96	114	65	133
B/C	126.1	104.9	120	161	131	41	96	81	151	57

표 5-6 kg당 생산비 수준별 투입 물재별 비용

단위: 천원

	kg당 생산비 (원)	총투입 비용	중간재 비용	노력비		자본용역비			단수 (kg)	면적 (평)
				고용	자가	유동	고정	토지		
최저(A)	843	6,884	2,892	240	3,153	146	225	228	8,164	450
최고(B)	1,278	5,476	2,461	201	2,169	108	238	300	4,285	700
평균(C)	1,120	7,236	3,227	495	2,829	150	223	313	6,629	528
B/A	151.6	79.6	85	84	69	74	106	132	53	156
A/C	75.3	95.1	90	49	115	97	102	73	123	85
B/C	114.1	75.7	76	41	77	72	107	96	65	133

이와 같은 현상은 (표 5-6)의 kg당 생산비 수준별 투입비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kg당 생산비가 가장 낮은 농가와 가장 높은 농가 사이에는 5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10a당 총투입 비용을 보면 kg당 생산비가 높은 농가가 무려 2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입물재별로 보면 kg당 생산비가 높은 농가의 경우 토지용역비만 낮은 농가에 비해서 32% 높을 뿐 그외의 비용은 70%에서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g당 생산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위당 수확량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kg당 생산비가 가장 낮은 농가에 비해서 무려 47%나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경영규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당 생산비가 낮은 농가에 비해서 높은 농가는 경영규모가 56%나 큰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농가의 단위당 투입비용은 낮은데 비해서 단위당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kg당 생산비 절감방안으로서는 단위당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다소 투입비용이 증가해도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단위당 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조방적인 생산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kg당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위당 투입비용의 절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확량의 증대라 하겠다.

(표 5-7)은 10a당 순수익 수준별 투입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익 구분은 전체 조사농가 중에서 부의 순수익 농가와 정의 순수익 농가, 그리고 전체 조사농가 중에서 순수익이 가장 낮은 농가와 가장 높은 농가를 구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영규모가 거의 같고 투입비용도 큰 차이가 없는데 순수익은 단위당 수확량에 따라 2.4

표 5-7 kg당 순수익 수준별 투입 물재별 비용

단위: 천원

	10a당 순수익	총투입 비용	중간재 비 용	노 력 비		단수 (kg)	면적 (평)	kg당 생산비(원)
				고용	자가			
부의순수익(A)	-748	6,376	3,333	291	2,752	5,996	536	1,071
정의순수익(B)	1,632	6,959	2,978	973	3,009	8,106	510	869
최저순수익(a)	-964	6,861	3,446	158	3,257	6,857	500	1,001
최고순수익(b)	3,011	6,285	2,892	240	3,153	8,164	450	770
평균순수익	-34	6,551	3,227	495	2,829	6,629	528	1,010
B/A	238.0	109.1	89.4	334	109.3	135.2	95.2	81.1
b/a	397.5	91.6	83.9	152	96.8	119.1	90.0	76.9

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이라 하겠다. 결국 단위당 비용 절감을 통한 순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규모 확대보다는 집약적인 생산에 의한 단위당 수확량 증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일수록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재배관리의 철저야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한편 (표 5-8)은 일본의 오이 5대 주산지별 100kg당 생산비를 우리나라 수출 오이 재배농가와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kg당 평균 생산비는 180엔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171엔에 비해서 5.3% 밖에 높지 않은 것

표 5-8 한일간의 시설오이 1차 생산비 비교

단위: 엔/100kg

	일본의 주요 주산지별						일본 평균 (A)	한국 농가 (B)	B/A
		群馬	愛知	徳島	高知	宮崎			
중 간 재 비	종 묘	397	115	620	266	251	310	692	223
	비 묘	1,002	999	1,631	1,333	1,395	1,243	2,907	234
	농 약	412	680	540	987	863	692	370	53.5
	광·동력	2,228	1,990	2,057	1,741	1,514	1,929	2,754	143
	水 利	24	-	-	60	-	15	-	-
	재 료	104	214	334	150	104	196	1,031	526
	농 구	770	893	1,011	587	622	806	266	33.0
	시 설	3,292	3,726	2,593	4,256	3,466	3,485	1,094	31.4
	임 차		13	-	3	2	5	20	400
	소 계	8,229	8,630	8,786	9,383	8,177	8,681	9,134	105
노 고 용	-	271	-	1,331	4	335	1,182	353	
력 자 가	11,257	9,199	8,923	8,528	6,900	9,013	6,754	74.9	
비 소 계	11,257	9,470	8,923	9,859	6,904	9,348	7,936	84.9	
합 계	19,486	18,100	17,709	19,242	15,081	18,029	17,070	94.7	
kg 당 비용	194.86	181.00	177.09	192.42	150.81	180.29	170.7	94.7	
단 수 (kg)	10,852	18,064	18,155	12,882	11,959	14,548	6,628	45.6	

주: 자본용역비를 제한 1차생산비임. 한일간의 환율은 633엔/100원.

자료: 일본: 야채생산비조사, 「농림수산통계정보부」, 1990.

한국: 수출오이 생산농가 조사치,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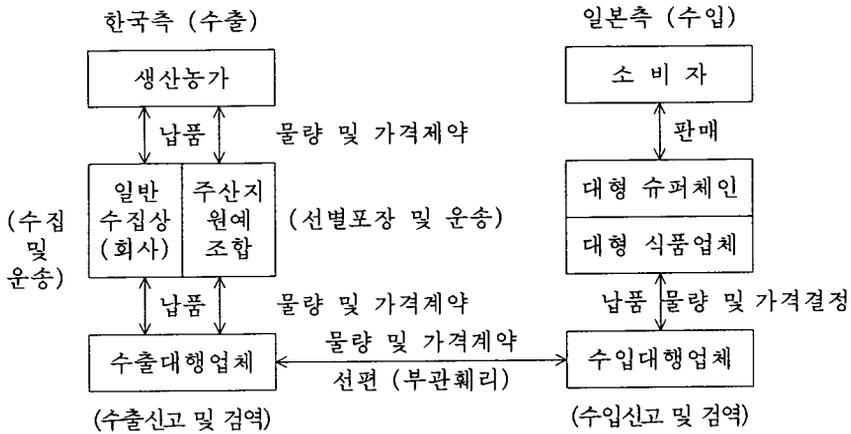
으로 나타나 수출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 나라가 불리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수출 오이와 가장 경합관계에 있는 宮崎縣의 경우 kg당 생산비가 147엔으로 우리 나라의 86% 수준에 지나지 않아 수출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재배농가의 kg당 생산비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단위당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단위당 수확량이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6%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간재비는 투입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데 비해서 노력비는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위당 투입비용은 일본에 비해서 약 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위당 수확량을 보면 일본의 평균 단수 14,548kg에 비해 우리 나라는 6,628kg으로 일본의 반에도 미치지 못해 kg당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면에서의 대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생산성 증대를 통한 단위당 비용 절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나. 대일 수출 부대비용 및 운송비 절감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유통경로는 극히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과거에는 대형 소비처에서 직접 수입해 유통경로가 일층 단순화 했으나 최근에는 물량 확보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대량 소비처도 자국의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는 간접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일반 수출업자나 정부지원 수출업체가 일본 소비처와 직거래 또는 일본의 지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도 있으나 취급물량면에서 극히 미미해 일반적인 유통경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수출 오이의 유통경로가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은 오이 수출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롯해 품종이 우리 나라에서

그림 5-1 한국산 수출오이의 유통경로



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 백침오이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소비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이 수출업체도 전문성을 지닌 일부 업체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자도 한정되어 있어 수출업자와 생산자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대일 신선오이 수출경로는 (그림 5-1)과 같이 일본의 수입 대행업체가 대량 소비처인 슈퍼체인 또는 대형 식품업체와 어느 정도 수입 물량 및 가격이 결정된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일본에서 우리 나라 오이를 수입하는 시기는 자국의 오이 생산량이 가장 작아 가격이 유리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5개월 정도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 대행업체는 소비처의 월별 입하량 계획 및 구입단가를 기초로 수입량을 결정해 한국의 수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한국의 수출 대행업체는 일본의 월별 수입량 계획 및 구입단가를 기초로 재배농가와 계약을 맺어 재배면적을 확보한다. 이때 재배면적 확보와 동시에 종자는 수입처가 요구하는 종자를 사용해야 함으로써 수출 대행업체가 조달 배부한다. 따라서 수출 대행업체는 월별 수출량 확보를 위해 지역을 분산해서 재배계약을 맺게 된다. 수출 대행업체가 계약을

맺는 농가는 오이 주산지의 원예조합이나 작목반과 거래를 맺고 있는 일반 수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 오이의 수확이 시작되면 생산자는 수확한 오이를 규격 및 품질 별로 선별해서 계약자인 원예조합이나 작목반과 계약한 일반 수집상을 통해 수출 대행업체로 운반한다. 수출 대행업체는 식물 검역 및 통관절차를 밟아 선편(부관훼리)으로 수출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수출업무만 할 뿐 품질이나 규격은 계약자인 원예조합이나 일반 수집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예조합과 일반 수집상과는 선별과정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원예조합은 포장단계에서 생산자가 분리해 온 것을 인부를 고용해 재분류 포장하는데 반해서 일반 수집상은 농가가 직접 규격별로 구분 포장해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한국산 오이는 수입 대행업체가 인수해 일정의 수입절차를 밟은 다음 육로를 통해 소비처로 운송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절차 및 지역별 배분은 통관업자에 의뢰해서 소비처별 물량 배분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배분되나 판매지역은 대개 일본의 대도시인 東京과 大阪, 名古屋, 그리고 九洲 등 수입자의 체인점을 통해 판매된다. 또한 판매방식은 수입자에 따라서는 수입 원산지를 표기하는 상점과 일본산과 동등히 취급하는 상점으로 구분되나 대개 자국산과 동등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수입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하겠다.

대일 수출 오이의 유통은 이미 유통경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유통과 일본내에서의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유통은 극히 단순한데 비해서 국내 유통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생산자가 원예조합과 계약한 것은 일단 생산된 오이를 조합에 납품하면 조합은 인부를 고용해 규격 및 등급별로 포장해 수출 대행업체에 납품한다. 이때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수수료인 수출액의 6%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대신에 수출항구까지의 운송은 조합이 직접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과 계약한 농가의 운송료는 조합의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5-9 수출 오이 수집경로별 비용

단위: 원/상자당(10kg)

	일반 수집상	원예조합	평 균	비 고
재 료 비	502	450	476	상자, 필름, 테푸
수 집 및 선 별 포 장	990	500	745	수 집, 선 별, 포 장 인 건 비
운 송 비	350	660	505	생산지에서 수출항까지
합 계	1,842	1,610	1,726	

주: 원예조합의 운송비는 조합의 수수료 6%임.

일반 수집상은 무역업무 대행업체와 중간수집업체임.

그러나 일반 수집상의 경우 수집상이 조합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과정은 같으나 선별포장이 일단 생산자단체에서 이루어진 다음 수집상이 수거해 재분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수집에 따른 인건비와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표 5-9)는 수출 오이의 수집경로별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수집상과 생산자단체인 원예조합과의 수집경로별 비용을 보면 원예조합에 비해서 일반 수집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는 일반 수집상의 경우 재료비와 수집 및 선별포장비용이 높는데 비해서 원예조합은 운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예조합의 운송비는 생산지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와 제반 수출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로 수출액의 6%를 공제하고 있어 운송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재료비와 수집 및 선별포장에 따른 비용이 일반 수집상에 비해서 낮은 것은 재료비의 실비 정산과 수집 및 선별포장작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일반 수집상의 경우 1차 생산자가 선별포장한 상품을 재선별포장하는 과정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 및 선별포장과정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공동출하방식의 출하조직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일반 수집상의 경우 (표 5-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선별과정의 부족분 보충 및 불량품 교체에 따른 비용 증대는 물론 썬폴 및 선물용 등 손실분이 무려 전체의 약 2.5%나 나타나 생산자와의 잦은 마찰

표 5-10 월별 총수집량에 대한 수출 실적

단위: 상자(10kg)

	10월	11월	12월	1월	합 계
총수집량(A)	14,144	17,464	9,101	2,555	43,264
총수출량(B)	9,367	14,500	9,039	2,533	35,439
손실분(C)	313	484	122	58	1,059
시판분(D)	4,404	2,450	-52	-36	6,766
(B)/(A)	66.2	83.0	99.3	99.1	81.9
(C)/(A)	2.2	2.8	1.3	2.3	2.5
(D)/(A)	31.1	14.0	-0.6	-1.4	15.6

주: 손실분은 농가로 부터 입고된 상품의 부족분 및 불량품 교체분 외에 샘플과 선물용 등이며, 시판분은 일본내의 가격하락으로 수출하지 않아 시판한 것임.

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하지 못해 시중에 판매한 양도 전체 물량의 15.6%나 되고 있어 그만큼 손실에 따른 생산자와 수집업자의 비용 증대는 단위당 수출비용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오이의 국내 수출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체계의 정립은 물론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수출항에서의 비용은 (표 5-11)과 같이 수출량에 따른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은 일부 수출업체와 일본의 소비업체가 직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표 5-11 컨테이너 규격별 수출 비용

단위: 원/상자(10kg)

	10F(600c/s)	20F(1,000c/s)	비 고
검 사 료	24	15	건당 1,500원
컨테이너운임	342	331	10F : 23만원, 20F : 30만원
컨테이너세	17	20	10F : 1만원, 20F : 2만원
부두사용료	3	4	10F : 2천원, 20F : 3~4천원
통 관 료	19	19	수출액의 1.5/1000
합 계	405	389	389원/405원=96.1%

전체 수출물량은 많으나 수출업체별 일회 수출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별 수출물량에 따른 컨테이너 크기는 수출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이 수출에 이용되는 컨테이너 크기는 10F와 20F로 구분되나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상자당 수출비용은 약 4%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표 5-12)와 같이 일본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유통비용은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서 단위당 비용차가 클뿐만 아니라 훈증소독 여부에 따라서도 단위당 수입비용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컨테이너 규모별 상자당 유통비용을 보면 10F컨테이너의 경우 상자당(10kg) 746.6엔인데 비해서 20F는 524.9엔으로 무려 27.3%나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증소독을 하지않을 경우 34.2%나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물량이 많을수록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훈증소독을 안했을 때의 비용 절감효과가 각각 35.5%와 39.6%로 나타나 단위당 수출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수출물량의 적정 물량 확보도 중요하나 그전에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 방제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5-12 일본의 컨테이너 규격별 유통비용

단위: 엔/상자(10kg)

		10F(600c/s)	20F(1,000c/s)	비 고	
통관료		18.5	11.1	건당 11,100엔	
취급료		25	15	건당 15,000엔	
후생성		8.3	5	건당 5,000엔	
시물검역		16.7	10	건당 10,000엔	
훈증료		264.7	207.8	10F	20F
입출고		4.7	2.8	2,800엔	2,800엔
투약료		150	95	90,000엔	95,000엔
입회비		50	50	30,000엔	50,000엔
자업료		60	60	36,000엔	60,000엔
터미널비용		46.7	56	10F : 28,000엔, 20F : 56,000엔	
육로운송비		366.7	220	1회 : 220,000엔(하관-동경)	
합계		746.6(100)	524.9(100)	524.9엔/746.6엔 = 72.7%	
(훈증료 제외)		481.9(64.5)	317.1(60.4)	317.1엔/481.9엔 = 65.8%	

주: 관세 5%, 그리고 보험료는 화주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포함하지 않았음.

표 5-13 수출 오이의 일본 도착 원가(한국-일본)

단위: 엔/상자(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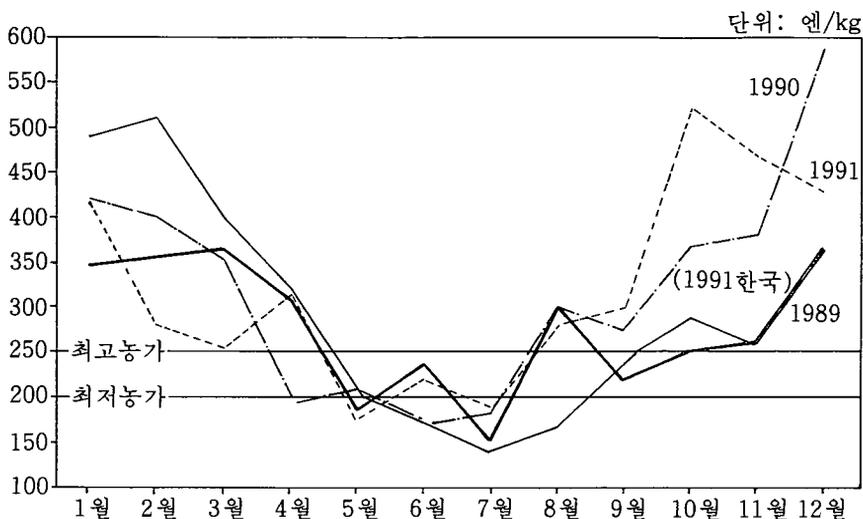
	10F(600c/s)	20F(1,000c/s)	비 고
제 품 가 격	2,014	2,014	오이값, 선별포장, 부산항 운송
한국수출비용	337	334	수출비용 및 운송(부산-하관)
일본수입비용	747	515	수입비용 및 운송(하관-동경)
(훈증소독제외)	482	317	(병해충의 발생이 없을 경우)
합 계	3,099(100)	2,873(100)	2,873엔/3,098엔=92.7%
(훈증소독제외)	2,833(91.5)	2,665(92.8)	2,665엔/2,833엔=94.1

주: 수입관세 및 보험료 그리고 수출입업자의 마진은 포함되지 않았음.
환율은 한국 \$당 788.40원, 일본 \$당 124.75엔을 적용했음.

(표 5-13)은 한국산 오이가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상자당(10kg) 가격(수출입상 마진 제외)을 나타낸 것이다. 상자당 가격은 10F의 경우 훈증소독을 제외하면 2,833엔인데 비해서 20F는 2,601엔으로 약 6%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증처리 여하에 따라서 단위당 수출가격이 각각 10F 8%, 20F 7%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수출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는 수출 오이 재배농가의 단위당 생산비(2차생산비)에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 산출한 일본 도착가격을 일본의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해 수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림에서 한국은 우리나라 월별 도매가격에 수출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며, 최고 및 최저 농가가 가격은 kg당 생산비에 수출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우선 한국산 도매가격의 경우 대일 수출이 가능한 시기는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약 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농가의 경우 단위당 생산비가 최저인 농가는 일본의 성출하기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4개월만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당 생산비가 최고인 농가는 전후 1개월이 많은 4월에서 9월 사이에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단위당 수확량을 일본 수준으로 2배 정도 증대가 가능하다면 대일 수출 경쟁력은 년중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일본의 월별 오이 도매가격 및 한국산 가격 비교



주: 일본은 년도별 월별 도매가격임.

한국은 도매가격에 수출비용을 포함한 가격임.

최고 및 최저가격은 수출오이 생산농가의 kg당 생산비에 수출비용을 포함한 가격임.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단위당 수출비용 절감은 물론 적정 수출물량 확보에 따른 수출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의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수출단계의 검역 철저로 훈증소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병충해 발생에 의한 훈증소독은 수입비용의 증대는 물론 상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수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수출상품의 규격화와 고급화

일본의 농산물 규격화와 품질의 등급화는 이미 대일 수출 경쟁력 분석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는 유통의 합리화와 거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품목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어 내용물은

물론 포장까지도 규격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산지에서는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도를 감안해 규격 및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산물 규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하고 품질이 고급화된 배경에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 소비구조의 변화로 풀이할 수가 있다. 즉,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식생활 소비구조를 과거의 전통적인 동양식 식생활에서 서구식 식생활로 전환함과 동시에 식품의 고급화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선호현상과 핵가족 및 독신생활자의 증가는 외식기회 증대와 동시에 외식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고도성장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는 여성의 취업기회 증대와 동시에 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도시지가 상승과 쾌적한 생활환경 선호현상은 주거지를 도시 외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시간 연장에 따른 식생활의 간소화와 외식기회를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와 같은 외식산업의 발달은 식품의 고급화와 규격화를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가정에서의 식품 소비형태도 과거의 대량 구입 비축소비형태에서 소량 구입 소비정산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소규모 정선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역시 큰 것보다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작은 것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소비자가 구입하기 편리하게 소규모의 정선된 농산물을 규격화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기하기에 이르렀다.

(표 5-14)는 일본 동경도매시장(대전시장)의 오이 규격별 도매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규격은 2L에서 2S에 이르기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거래되고 있다. 등급별 거래가격을 보면 규격이 작을수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간의 가격차 역시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S규격으로 이 규격보다 작은 2S규격은 오히려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오이의 규격은 S규격임을 알 수가 있다.

표 5-14 일본 오이의 표준규격별 가격

대소구분	1개의 길이(cm)	1개의 중량(g)	도매가격(엔/kg)
2L	23cm 이상	120 g 이상	124
L	21cm 이상~23cm 미만	100 g 이상~120 g 미만	268
M	19cm 이상~21cm 미만	80 g 이상~100 g 미만	305
S	16cm 이상~19cm 미만	65 g 이상~ 80 g 미만	319
2S	-	-	302

자료: 일본 동경중앙도매시장(大田).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농산물의 규격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급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미 대일 수출 오이의 품질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S규격의 불량품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농가의 규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대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생산농가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품질의 고급화와 규격화는 단지 홍보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 나라도 농산물의 표준규격에 의한 차등가격제도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대일 농산물 수출체계의 확립방안

대일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가격 및 품질외에 상거래상의 신용도 문제와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상거래상의 신용도 실추는 수입국의 수입선 전환과 동시에 수입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게 되며, 수출업체간의 과당 경쟁은 수출시장의 질서를 물란하게 함으로써 출혈수출에 따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신용도 증진은 물론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는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가. 대일 수출 신용도 증진

모든 상거래는 신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상거래 신용도야말로 기업 존폐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과 같이 상인간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상거래 신용도를 중시하는 나라에 우리 나라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거래상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거래하는 대다수의 수입업자는 공통적으로 물량 및 품질을 비롯해 가격 등 거래상의 신용도 면에서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서 적시에 적량의 계약물량이 도착하지 않는 점을 비롯해 품질이 초기 수출품과 다른 점, 그리고 가격 인상이 잦은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수출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물량 감소는 물론 수출단가 인상을 요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표 5-15)는 한국의 N수출업체와 일본의 I수입업체간의 1991년도 신선오이 수출입계획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수입업자 요구 시기 및 물량은 11월에서 익년 1월 사이에 1,500톤으로 월별 수출물량 비율은 11월에 20%, 그리고 자국내 단경기인 12월과 1월에 각각 50%와 3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량은

표 5-15 1991년도 대일 신선오이 수출 이행결과(N사)

단위: 톤

	10월	11월	12월	1월	합 계
수출요구량(A)		300(20)	750(50)	450(30)	1,500(100)
수출이행량(B)	310(31)	410(41)	220(22)	60(6)	1,000(100)
(B)/(A)	-	136.6	29.3	13.3	66.7
수출량 절충안	15%	40%	30%	15%	100%

주: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수출량의 절충안은 수출업체의 요구사항임.

자료: 한국의 N수출업체 및 일본의 I수입업체.

1,000톤으로 당초 계획의 66.7%에 지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월별 수출물량 비율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체 물량의 무려 72%를 수출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12월과 1월에는 28%의 물량밖에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수입 판매업체의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수출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차기계약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 물량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에는 기후조건의 변화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표 5-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에 비해서 낮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수출시기에 따라서 단위당 수출 단가를 변동하고 있으나 10월과 11월의 수출가격은 국내 도매가격에 비해서 각각 17.4%와 7.3%가 높는데 반해서 12월에서 2월에는 수출가격이 국내 도매가격의 76%에서 92%선에 지나지 않아 수출업자의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 오이의 생산은 재배농가와 수출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지 신용을 전제로 한 구두상의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선도금의 지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현실적이다. 따라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출업자의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해 구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수출업자는 당초 계약물

표 5-16 신선오이의 대일 수출가격과 국내 도매가격 비교

단위: 원/kg

	'91.10월	11월	12월	'92.1월	2월	평 균
수출가격(A)	1,100	1,300	1,400	1,400	1,400	1,320
국내가격(B)	937	1,212	1,716	1,848	1,432	1,429
(A)/(B)	117.4	107.3	81.6	75.8	97.8	92.4

주: 월별 수출가격은 N수출업자의 월별 평균 수출가격임.
 자료: 국내 도매가격, 농수축산물 도매가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 각년도.

량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출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나 수입업자 측에서 생각할 때 국내 가격이 안정되 있는데 수입단가가 올랐다고 판매단가를 올리면 소비자가 납득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판매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와 판매수익을 나추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수출업자가 수출단가를 낮춘적은 없다는 것이 수입업자의 불만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즉, 수출업자는 될수 있는 한 국내 가격이 낮고 단위당 생산비가 낮은 시기에 수출물량을 늘임으로써 수익을 올리려하고, 이와 반대로 수입업자는 자국내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에 물량을 늘임으로써 수입에 따른 이윤을 높이려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금년도 수출물량은 상호 이익을 안배한다는 의미에서 절충안을 수출업자가 제시하고 있으나 수입업자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한편 수출상품의 질적 저하 또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품질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불량품의 비중이 많은 점이라 하겠다. 대다수의 신선오이 수입업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수입 초기의 상품에 질은 일본산과 거의 손색이 없어 수입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규격 미달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술이 향상되 상품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통례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경우 이와는 반대현상이 일어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재배농가의 수출 상품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된 문제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수출업자의 수출 상품에 대한 관리 부족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신선채소의 대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의 안정을 통한 수출신

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수출시장의 질서 확립

현재 농림수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율류(농림수산물) 무역업자는 약 271개 업체로 추산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112개 업체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가공식품 98개 업체, 농산물 22개 업체, 축산 및 원예작물 16개 업체, 복합취급 14개 업체, 임산물 9개 업체 순이다. 여기에 생산자 단체 수출기구와 정부지원 수출기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들 업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체를 대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업체가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미 대일 농산물 품목별 수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 비중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선채소류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표 5-17)은 1992년에 부산검역소를 통해 일본에 수출한 신선채소류 품목별 업체 수와 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품목별로 수출업체 수를 보면 우엉이 13개 업체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오이 7개 업체, 냉동딸기 6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엉과 냉동딸기는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용도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소비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입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이의 경우는 다른 품목과 달라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선오이는 저장성이 약해 일반 채소상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현재 일본에서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이또요까또를 비롯해 타이에, 이쓰미야 등 소수 대형 슈퍼체인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체의 수입물량도 현재 시험수입단계임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수입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일 신선오이 수출도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시험수입에 따른 시험수출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표 5-17 신선채소류 품목별 대일 수출업체 수 및 물량(1992년 부산검역소)

단위: kg

		업 체 수	건 수	물 량
오	이	7	236	881,410
호	박	1	1	1,494
수	박	1	1	12
배	추	3	8	85,365
양	배 추	2	9	139,750
무	우	1	1	15
양	파	3	3	56,200
우	영	13	73	850,895
당	근	1	2	5,430
냉 동	딸 기	6	14	153,820

자료: 식물검역소 부산지소, 1993.

대일 신선오이 수출이 호조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해 수출업체들은 물론 정부지원 수출기구까지 무질서하게 난립해 수출시장의 질서를 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결국 시험수출단계에 무질서한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은 국내 수출시장은 물론 일본 시장의 질서를 물란하게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금후 대일 신선오이 수출 확대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화

농산물의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저장성이 약할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따라 수확량 변동 역시 심해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획적인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생산 또한 품목에 따라서 지역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업체 역시 품

목에 따라 전문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품목에 따라 지역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농산물 수출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문수출업자가 수출하기 보다는 일반 수출업자가 필요에 따라 수출품목을 수집해 수출하고 있어 물량 확보 및 수출 규격품 수집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수집업무에 따른 시간낭비와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는 수입국의 규격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해 수출품 수집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만 현재 대일 수출 오이는 생산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화되어 있고 또한 수출업체 역시 전문화되어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서 비교적 생산 및 수출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시험수출단계의 일시적인 현상일뿐 최근에는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업체 역시 다수의 신규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의 질서를 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지원 수출기구까지 여기에 참여해 민간 수출업자와의 마찰에 따른 정부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별 전문 주산단지를 조성해 계획적인 생산 및 계획적인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품목별 수출 전문 주산단지의 조성은 기존의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내수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품목별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특히, 품목별 수출 전문 주산단지 내에는 집화장을 비롯해 선별, 포장, 저장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물론 가공시설을 설치하므로서 가공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단지내에서 수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은 물론 수출절차 등 제반 시설 및 기구의 설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주산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출업자, 그리고 수출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자체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은 물론 운영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즉, 제도적인 지원으로서는 내적으로 생산농가와 수출업자가 생산활동 및 수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적으로는 수입국의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재정적인 지원으로서는 생산농가의 생산기반 정비와 자재지원을 비롯해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상품대 및 제반비용 지불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 재정지원은 UR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업구조 조정과 농가소득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우선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화를 위한 수출 전문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수출 전문 주산단지의 조성이 기존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기존의 주산단지는 시설이 낙후되 있을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출 전문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정비는 물론 시설의 현대화와 집화장을 비롯해 선별장 및 저장시설 등 신규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농가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많은 투자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내에 들어가는 제조업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설투자는 물론 원료 확보 및 운영자금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다수의 수출업체는 소규모의 영세성을 면치못해 수출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수출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금 회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특히, 수출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변제능력이 없어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입국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 하겠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활성화자금을 비롯해 수출 촉진자금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 있을뿐만 아니라 규모가 적은 데 비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금리 역시 높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은 그나마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는 한 수출 전문 주산단지내의 입주를 통한 연계수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정책이 불가피하나 이것 역시 UR협상에 저촉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통촉진사업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재 실시중인 지원사업과 통합정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나.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으로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합리화는 물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생산농가와 수출업자가 생산활동 및 수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대의적인 외교교섭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인 지원은 생산기반 정비지원을 위한 법적인 제도는 물론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겠다. 특히 수출농가의 소득보장으로서의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수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업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 촉진제도는 물론 수출 보험제도를 비롯해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신규개척자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 제도적인 뒷바침이 따라야 하겠다. 아울러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수출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한편 행정적인 지원으로서는 생산농가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 예로서 시설원예의 경우 년중 생산활동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생산기간중의 재배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하므로 거의 시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가 다소 먼 농가는 재배관리를 위해 시설내에 임시주거지를 설치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내의 주거지 설치는 법적으로 위법이므로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생산활동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그전에 행정적인 조치로 원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업체의 행정적인 간소화 요구는 자금지원 절차와 수출절차라 하겠으나 자금지원 절차는 재정 지원과 관련되므로 여기에서는 수출절차에 한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수출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역절차가 까다롭고 준비서류도 많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과 검역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을 다투는 농산물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검역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농산물의 수출입 자유화와 개방화에 힘입어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

라 품목도 크게 증가한데 반해서 검역소의 인력이나 장비는 거의 변동이 없어 날로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 예로서 농산물 수출이 가장 많은 식물검역소 부산지소의 경우를 보면 직원 62명이 8개 출장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부산지소 관할 검역장소만 도 넓은 지역에 360개 장소를 29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도 행정적인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출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대외적인 행정 지원으로서는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인 교섭 강화라 하겠다. 특히, 일본의 식물 검역은 국내 농산물 수급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 수출 농산물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자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식물 검역절차나 과정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농가의 사전 병해충 방제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출검역 역시 철저히 이루어 짐으로써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일본측의 과도한 검역절차는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빈

면

제 6 장

요약 및 결론

국제화·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쟁관계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UR 협상 타결로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관계 또한 일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운송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변동 역시 큰 문제점을 앓고 있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저장성이 약해 운반에 따른 신선도 유지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역시 큰 문제점을 앓고 있어 원거리 국가보다는 인접국과의 교역량 증가는 물론 경쟁관계 또한 심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것은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대일 농산물 수출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품목 역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대일 수출 경쟁국인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 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신선 채소류 중에서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대일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과정의 고용기회 확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기회 확대로 가사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여가 선호현상을 크게 증대시킴으로서 식품 소비구조를 쌀 위주의 전통적인 동양식 식생활에서 빵이나 밀 또는 육류 등 편이식품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육류를 비롯해 신선채소 및 과실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생산량은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로 크게 감소해 국내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류의 수입량은 1980년 468천톤에서 1989년에는 무려 3.3배나 증가한 1,551천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신선채소만도 1980년 108천톤에서 1991년에는 272 천톤으로 2.7배의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량 역시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선채소류의 경우 저장성이 강한 품목은 거리에 관계없이 수입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하고 운송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품목은 인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나라로부터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량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조건에 따라 수입선 역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소비 선호경향이 고급화와 다양화, 그리고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어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수입선은 인접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 우리 나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의 농산물 총수출액은 1991년 현재 약 30억불로 그 중에서 대일 수출액이 63.3%인 약 20억불로 나타나 농산물의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전체 수출의 약 52%를 차지해 가장 높고, 이어서 농축산물 약 27%, 임산물 약 21% 순으로 수산물의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나 최근에는 수산물의 대일 수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농축산물과 임산물의 대일 수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부문별 대일 수출 품목의 변화를 보면 농축산물의 경우 과거 인삼류를 비롯해 면양 또는 산양고기, 일시 저장과실 등 우리 나라 고유의 특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인삼류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 반해서 돼지고기를 비롯해 벗짚제품, 냉동딸기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에 김치를 비롯해 신선채소 및 화훼류의 대일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한편 신선채소류의 수출은 1989년 현재 약 4,512톤에서 1991년 현재는 10,712톤으로 무려 2.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양배추가 8,869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오이 709톤, 송이버섯 304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저장성이 높은 양파의 수출량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양파가 크게 감소한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신선오이를 비롯해 파종류, 토마토, 레타스 등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선오이는 1988년 8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2년에는 1,160톤으로 무려 150배의 수출량 증가를 보이고 있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시기는 일본의 생

산량이 낮은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무려 6개월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본의 오이 수입량은 1992년 현재 약 55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가공용 오이로 중국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신선오이만은 현재 전량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오이의 수입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오이 주산지의 식부면적이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일본의 단경기인 10월에서 익년 3월 사이에 신선오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주로 생산하는 도시주변 주산지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이 이외의 다른 신선채소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후 신선채소의 대일 수출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일본의 오이 수입은 대다수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신선오이는 단지 우리 나라로부터만 수입하고 있어 가격면에서의 경쟁력 비교는 일본산에 한정되어 있다. 다만 과거에 우리 나라도 가공용 오이를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나 경쟁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의 가격이 2배 이상 높아 최근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선오이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가격에 국내 수출비용 및 일본내의 수입비용을 포함해 비교해 본 결과 9월에서 익년 3월 사이의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재배능가의 단위당 수확량이 일본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극히 낮아 단위당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금후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위당 수확량이 일본 수준에 근접할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가격 면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품질면에서의 경쟁력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의 농산물 품질 규격화와 등급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할뿐만 아니라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넓은 지역에 대량의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유통의 합리화와 거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품목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이의 경우 대개 정부가 정한 것은 4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별로는 자체 판매전략을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 보다도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12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지역도 있다.

현재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규격은 S, L, M 등 3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가의 표준규격 등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출상품의 규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수출품의 규격 미달을 비롯해 불량품 확률이 높아 품질면에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농산물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결과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4.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대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수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 신용도 증진 및 수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대일 수출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관리 철저는 물론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수출업무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생산농가의 단위당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단위당 투입비용의 절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

확량의 증대라 하겠다. 그 예로서 수출오이 생산농가의 10a당 수확량은 최저 4,286kg에서 최고 10,000kg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10a당 수확량 14,548kg에 비하면 우리 나라 수출 오이 생산농가의 단위당 수확량이 극히 낮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kg당 생산비는 최저 843원에서 최고 1,278원에 이르기까지 무려 5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위당 생산비가 최고로 높은 농가는 일본의 평균 kg당 생산비 1,141원 보다도 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출 오이 생산농가의 단위당 생산비 격차가 큰 것은 재배관리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비배관리 즉, 유기질 비료 시용량 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위당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재배관리, 즉 온실의 온도를 비롯해 배수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도 중요하나 그 전에 유기질비료 시용에 의한 토양 관리의 철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품질관리 역시 재배관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재배기간 중의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량의 적정선 유지로 단위당 운송비를 최소화해야 하며, 생산농가의 철저한 병충해 방제는 물론 검역의 철저를 통한 수입국의 훈증소독에 따른 소독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훈증소독 할 경우 비용은 물론 신선도를 크게 떨어트려 품질 경쟁력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농산물의 표준규격이나 품질의 등급화는 일본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포장규격 역시 일정하지 않아 대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예로서 최근 우리 나라 수출 오이의 규격 및 품위를 일본의 수입 판매상인 대기업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규격 불량율이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규격의 불량율이 37%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부 생산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불량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일 신선채소의 수출신용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신선채소의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상품의 규격화와 품질의 등급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상거래의 신용도는 기업의 생명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상거래의 원칙이다. 특히, 일본의 상거래는 두텁고 끈끈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거래상의 지속성이나 계약상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다수의 수입업자 여론은 물량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비롯해 수입 물량을 늘리면 늘릴 수록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가격 인상요구가 잦은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수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출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업체의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업체인 율류무역 등록업체는 총 271개 업체로 여기에 정부지원 수출기구인 상공부의 KOTRA와 농산물 유통공사의 한국물산,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의 협동무역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업체는 각각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름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출업체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이익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출 오이의 경우 아직 시험수출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수출기구는 물론 일반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수출시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수출 신용도 증진은 물론 수출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의 조성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출 전문 주산단지내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은 물론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하에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에 따른 제반절

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검사기구도 단지내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수출 전문 주산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참여한 자체운영 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 정비를 비롯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 등 제반비용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일 외교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관세율의 국가간 형평 문제를 비롯해 검역기준의 완화 등 제반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를 정부의 정책적인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3~4%인데 비해서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5~15%로 높은 것을 비롯해 미국이나 EC에서 수출하는 아몬드의 관세율은 3%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에서 수출하는 밤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높은 관세율을 부치는 관세부과의 불형평을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 또한 검역절차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농산물의 관리 철저는 물론 검역의 내실화와 충실성을 기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운송수단이 발달되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검역소의 업무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반해서 검역소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출 농산물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소의 인력 보강은 물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검역장비나 검역절차를 최소한 국제 식물보호협약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정비해 일본의 검역절차에 따른 수입장벽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지정이나 하자 발생시의 처리절차 등도 상호협약 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시장정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및 전달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산하 수출기구의 정비 및 조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

재 불리실시하고 있는 각 기구별 시장정보 수집 및 무역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구별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범위내에서 통폐합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사전에 막고 시장정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의 조직을 시장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시장정보부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업무부로 구분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개의 조직은 상호유기적인 연계관계를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장정보부에서는 일본시장의 장단기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 및 수입선 변화와 수출 경쟁국의 수출여건 변화를 동시에 분석해 수출업무부로 전달하면 수출업무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 수출 업체와 일본의 수입업체를 연결시킴으로써 수출의 원활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출업무부는 우리 나라 농산물의 홍보활동은 물론 수입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시장 개척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들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빈

면

참 고 문 헌

- 이중웅, 일본의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55, 1992. 12.
- 이중웅 외, UR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경쟁력 재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7, 1991. 12.
- 유진수, 일본의 무역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4, 1992. 3.
- 조병택 외,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7, 1992.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 통계, 각년도.
- _____,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 1991. 8.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대일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대책회의 보고자료, 1992. 5.
- _____, 일본의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제도, 1992. 1.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진흥대책, 1992.
- _____, 대일 농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대책, 1992. 2.
- _____, 수출유망농산물 해외시장(채소류, 화훼편), 1992. 12.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 농수축산물가격동향, 각년한국물산주식회사, 대일 농수산물 수출증대 방안, 1992. 7.
- _____, 일본 화훼산업 현황. 1992. 7.
- 농협중앙회, 농산물무역과 농업발전, 1985.
-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추농산물 해외시장 성가조사, 1982.
- _____, 무역통계연보, 각년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해외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조사보고, 1989.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기술대응 방안, 1991. 3.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년도.

_____, 원예통계, 각년도.

_____, 1990년 청과물 집출하경비조사보고, 1992.

농림수산성, 농림통계협회, 농업백서, 1992.

_____, 1991년도 농업관측, 1991.

농림수산성, 경제국, 1991년 농림수산물 수입개항, 1992. 3.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회, 1991년도 수입청과물통계자료, 1992.

전국생선식료품유통정보센터, 청과물유통통계월보, 1991. 7~1992. 8.

일본무역진흥공사,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동경중앙도매시장, 동경청과주식회사, 1992년 지역별 청과물취급량 및 가격

연구보고 287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적은날 1993. 12. 퍼낸날 1993.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 5-10호 (1979. 5. 25)

적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